

# KIA, PO 직행 가능성은?

남은 4경기 모두 이겨도 자력으로 안돼

롯데 1승3패·SK 4승5패 기록해야 가능

'호랑이 군단'의 최후의 아웃카운트가 시작됐다.

숨가쁘게 달려온 2011 프로야구가 마지막 결승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앞으로 남은 경기는 총 58경기. 삼성 라이온즈가 매직넘버를 1로 줄이며 삼표인을 터트릴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2위 롯데·3위 SK 그리고 4위 KIA의 자리 경쟁은 아직도 진행형이다.

KIA는 지난주 두산과의 홈 2연전에서 이어 윤석현을 앞세워 귀중한 1승을 더했지만 서재용이 선발로 나선 25일 수비가 훌륭하면서 빠이픈 패배를 기록했다.

0.527의 승률로 4위에 머문 KIA에게 잔여 경기는 4, 2위 롯데 4경기와 남았다. SK는 9경기를 더 치러야 하지만 이중 KIA와 3번의 대결을 벌여야 한다.

KIA가 남은 4경기에서 모두 승리를 가져오더라도 2위를 차지할 수는 없다. 2위의 가능성은 극히 낮지만 아직 경우의 수는 남아있다.

KIA가 남은 4경기에서 전승을 거둔다고 가정할 경우 승률은 0.541. 역시 4경기와 남겨둔 롯데가 1승3패 그리고 SK가 4승3패를 기록하면 기적적으로 2위에 오를 수 있다. SK가 KIA와 3연전을 남겨 두고 있는 만큼 KIA의 전승을 가정할 경우 사설상 4승2패가 SK의 마지막 노선이다.

KIA 팬들의 '희망고문'은 가장 빠르면 30일 끝나 날 수 있다.

KIA는 이번주 두산과의 원정 한 경기만을 치른다. 29일 두산전에서 KIA가 패를 기록하고, 30일 롯데가 승리를 거둘 경우에는 남은 경기와 상관없이 KIA는 2위 싸움에서 배제된다. 이날 롯데가 패배를 기록하더라도 SK가 27일부터 30일까지 4연승을 기록한다면 역시 KIA가 2위 싸움에서 탈락한다.

29일 KIA가 승리를 거둔다고 해도 내달 1일 SK의 경기에 대해서서 2위 탈락 선고 받을 수도 있다.

이번주 KIA는 5경기를 치러야하는 가장 숨

■ 2011 프로야구 중간순위 (9월 26일 현재)

팀	경기수	승	패	무	승률	개입차	연속
1 삼성	124	75	47	2	0.615	4승	
2 롯데	129	68	56	5	0.548	8.0	1패
3 SK	124	66	56	2	0.541	9.0	1패
4 KIA	129	68	61	0	0.527	10.5	1패
5 LG	125	58	66	1	0.468	18.0	1승
6 두산	124	56	66	2	0.459	19.0	1승
7 현화	126	56	68	2	0.452	20.0	1승
8 넥센	125	48	75	2	0.390	27.5	3패

가쁜 일정을 앞두고 있다. 넥센과 2연전에 이어 삼성과 3연전을 벌이는 SK가 내달 1일 삼성과의 경기에서 5연승을 쳐는다면 KIA는 2위를 포기해야 한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KIA가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전행될 SK와의 시즌 마지막 3연전까지 승부를 가져오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29일 경기에서 승리를 거둔 뒤 SK의 움직임을 지켜봐야 한다.

KIA와 롯데는 각각 29일 30일 경기를 치른 뒤 내달 4일까지 일정이 없다. 경쟁팀들이 한 경기와 소화하는 동안 SK는 6경기를 치러야 한다.

가장 많은 경기를 남겨 둔 SK의 한 경기 한 경기에서 KIA와 롯데의 계산이 복잡해지게 됐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프로야구 신생구단 NC

### 투수 나성범과 3억 계약

프로야구 신생구단인 NC 다이노스는 지난달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한 연세대 원 손 투수 나성범과 3억원에 계약했다고 26일 밝혔다.

나성범은 지난 20일 한화에 전체 1순위로 지명돼 계약금 3억원에 도장을 찍은 신인고 내야수 하주석과 함께 내년에 입단하는 신인 선수 중 최고의 몫값을 기록했다.

NC는 또 휘문고 내야수 박민우와 1억 6000만원에 계약하는 등 신인 드래프트에서 지명한 17명 중 13명과 계약을 맺쳤다고 밝혔다.

계약을 끝내지 못한 선수로는 우선 지명한 노성호(동국대)·이민호(부산고·투수), 김태우(단국대·포수), 노진혁(성균관대·내야수)이 남았다.

/연합뉴스

## 광주시장기 겸도대회

### 오토겸도관 종합우승

제21회 광주시장기 겸도대회에서 오토겸도관이 우승을 거머쥐었다.

오토겸도관은 25일 서석중·고등학교 체육관에서 열린 시장기 겸도대회에서 신창 겸도관을 누르고 종합 우승을 가져갔다.

400명이 참가해 경쟁을 벌인 이번 대회 종합 3위는 맥심겸도관이 차지했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30년 태이거즈 30년

(47) 현대, 한국시리즈 2연패

2004시즌 디펜딩 팀파인 현대 유니콘스는 2003시즌에 이어 페넌트레이스 1위와 한국시리즈 팀파인 자리에 오르며 명실상부한 최강자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현대의 우승이 값진 이유는 모기업의 재정으로 전력의 유출은 있고 수혈이 없는 상태에서 고창들이 극성의 야구로 일궈낸 결과였다.

현대가 구멍 뚫린 전력을 극복화할 수 있었던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프린트에서 신인왕에 오른 오재영과 에이스 역할을 해낸 유흥 피어리를 꾹압해 공급해준 역할이 커다. 좌완 오재영은 10승9패(방어율 3.99, 113탈삼진), 피어리는 16승6

한국시리즈 1차전은 현대가 피어리-조용준의 계투와 블루바의 훌런으로 6-2로 승리했다. 2차전은 처절한 공방전 끝에 첫 사례인 9이닝 시간제한 8-8 무승부. 3차전은 현대가 김진웅의 호투에 놀린 데다 훌런 3점을 얻어맞고 3-8로 패했다.

4차전은 연장 12회까지 가는 살얼음 판승부 끝에 0-0 무승부. 5차전은 신인 오재영의 역투와 심정수의 3점 홈런 포함 훌런 4타점의 활약으로 현대가 4-1로 승리했다. 6차전은 현대가 김진웅-권오준의 눈부신 피칭에 밀려 0-1로 패했다. 7차전은 또 다시 시간제한 6-6 무승부. 8차전은 현대가 신칠언-조용준의 계

## '시간제한' 2차례… 9차전까지 피말리는 승부

### 8대7 '케네디 스코어'로 삼성 꺾고 감격의 V4

파(방어율 3.32, 130탈삼진)의 발군의 기량을 발휘하였다.

이 지역 순천 효천과 출신 '조라이다' 조용준은 평명 슬라이더로 10승34세이브로 팀 승리를 확실히 지켜주었고, 한국시리즈에서는 7경기에 등판 방어율 '0'에 세이브(11탈삼진)를 기록, 한국시리즈 MVP에 선정됐다.

우즈·호세·데이비스와 더불어 융병 타자 빅4로 힘쓰는 브루버는 수위타자 (0.343·장타율(0.608)·출루율(0.418) 등 세 부문에서 1위에 오르는 기업을 토했고, 전준호는 도루왕(53개)에 올라 확실한 테이블을 끓여냈다.

그 외에도 김수경·송신영·이상열·박진만·송지민·이승용·강귀자·전근표 등이 투타에 걸쳐 맹활약을 했다.

2004시즌 준플레이오프전에서 3위 두산이 4위 KIA에 2전 승, 플레이오프전에서 2위 삼성이 두산에 3승1패로 모처럼 하극상 없이 순위대로 한국시리즈에 진출했다.

투와 심정수·전근표의 훌런으로 3-2로 재역전승을 거뒀다.

그리고 세계신기록인 최장 회차 텁파언 결정전인 9차전에서는 현대가 2회에 8득점한 것을 곳간에 넣어두고 다 깨마다가, 특급 저김이 조용준이 간신히 1점만을 남기고 지켜내며 케네디 스코어인 8-7로 눈물겨운 V4를 이루었다.

그러나 '빈곤한' 현대는 완벽한 우승을 하고도 골든글러브 수상을 단 한 명만 배출하는 아이러니를 연출하였다. '부유한' 2위 삼성은 6명의 수상을 배출해 대조를 이뤘다. 현대가 흥행받지 못한 우승을 한 것일까? 아니면 스타 한 명 없이 팀워크로만 우승을 일구낸 것일까?



김재요

〈조선이공대 교수·한국야구기록연구회장〉

## 전국체전 광주선수단 필승 결의

제92회 전국체육대회의 필승을 다지는 광주 선수단 결단식이 26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렸다. 결단식에는 광주를 대표하는 선수대표 선서, 격려금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시즌 전국체전은 내달 6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를 비롯한 20개 시·군에서 2만8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지며 광주는 카누, 편수영 종목을 제외한 43개 종목에 1290명(선수 973명, 임원 317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행사는 단장인 강운태 시장이 박재현 시체육회 사무처장(총감독)에게 단기를 수

여하는 것을 시작으로 격려말씀, 선수대표 선서, 격려금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시즌 전국체전은 내달 6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 고양시를 비롯한 20개 시·군에서 2만8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한 가운데 치러지며 광주는 카누, 편수영 종목을 제외한 43개 종목에 1290명(선수 973명, 임원 317명)의 선수단을 파견한다.

여는 것을 시작으로 격려말씀, 선수대표 선서, 격려금전달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26일 염주종합체육관에서 열린 전국체전 선수단 결단식에서 참가자들이 선전을 다짐하는 피팅을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광주신한은행이 전국 청년 축구선수 10월 9일(일) 5~15일(일) 염주종합체육관 출발 5~30분각자, 5~45분예습관 후문시내버스정류장, 6~10분(한정방문)호수공원, 동부센타리움(한정방문) 진관주차장, 7~10분(한정방문)한정방문, 10~15분(한정방문)한정방문, 15~20분(한정방문)한정방문, 20~25분(한정방문)한정방문, 25~30분(한정방문)한정방문, 30~35분(한정방문)한정방문, 35~40분(한정방문)한정방문, 40~45분(한정방문)한정방문, 45~50분(한정방문)한정방문, 50~55분(한정방문)한정방문, 55~60분(한정방문)한정방문, 60~65분(한정방문)한정방문, 65~70분(한정방문)한정방문, 70~75분(한정방문)한정방문, 75~80분(한정방문)한정방문, 80~85분(한정방문)한정방문, 85~90분(한정방문)한정방문, 90~95분(한정방문)한정방문, 95~100분(한정방문)한정방문, 100~105분(한정방문)한정방문, 105~110분(한정방문)한정방문, 110~115분(한정방문)한정방문, 115~120분(한정방문)한정방문, 120~125분(한정방문)한정방문, 125~130분(한정방문)한정방문, 130~135분(한정방문)한정방문, 135~140분(한정방문)한정방문, 140~145분(한정방문)한정방문, 145~150분(한정방문)한정방문, 150~155분(한정방문)한정방문, 155~160분(한정방문)한정방문, 160~165분(한정방문)한정방문, 165~170분(한정방문)한정방문, 170~175분(한정방문)한정방문, 175~180분(한정방문)한정방문, 180~185분(한정방문)한정방문, 185~190분(한정방문)한정방문, 190~195분(한정방문)한정방문, 195~200분(한정방문)한정방문, 200~205분(한정방문)한정방문, 205~210분(한정방문)한정방문, 210~215분(한정방문)한정방문, 215~220분(한정방문)한정방문, 220~225분(한정방문)한정방문, 225~230분(한정방문)한정방문, 230~235분(한정방문)한정방문, 235~240분(한정방문)한정방문, 240~245분(한정방문)한정방문, 245~250분(한정방문)한정방문, 250~255분(한정방문)한정방문, 255~260분(한정방문)한정방문, 260~265분(한정방문)한정방문, 265~270분(한정방문)한정방문, 270~275분(한정방문)한정방문, 275~280분(한정방문)한정방문, 280~285분(한정방문)한정방문, 285~290분(한정방문)한정방문, 290~295분(한정방문)한정방문, 295~300분(한정방문)한정방문, 300~305분(한정방문)한정방문, 305~310분(한정방문)한정방문, 310~315분(한정방문)한정방문, 315~320분(한정방문)한정방문, 320~325분(한정방문)한정방문, 325~330분(한정방문)한정방문, 330~335분(한정방문)한정방문, 335~340분(한정방문)한정방문, 340~345분(한정방문)한정방문, 345~350분(한정방문)한정방문, 350~355분(한정방문)한정방문, 355~360분(한정방문)한정방문, 360~365분(한정방문)한정방문, 365~370분(한정방문)한정방문, 370~375분(한정방문)한정방문, 375~380분(한정방문)한정방문, 380~385분(한정방문)한정방문, 385~390분(한정방문)한정방문, 39